세계 병자의 날

9일 기도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CATHOLIC MEDICAL CENTER

세계 병자의 날 제정 배경 및 의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매년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교회 창립 때부터 보여 온 병자들에 대한 봉사 정신과 교황의 관심, 그리고 현재 세계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것입니다. 또한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목과 자선 활동에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사회 안에서 그러한 활동이 더욱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하신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병자의 날'은 고통의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교회의 의무를 자각시키는 것은 물론 각국의 보건 의료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이에 투신하는 신자들을 격려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날 : 입원 환자들을 위하여

둘째 날 : 수술 환자들을 위하여

셋째 날 : 중환자들을 위하여

넷째 날 : 난치병 환자들을 위하여

다섯째 날 : 임종 환자들을 위하여

여섯째 날 : 재활 환자들을 위하여

일곱째 날 : 환자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덟째 날 : 의료인들을 위하여

아홉째 날 : 자원 봉사자들을 위하여

첫째 날

입원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갖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질병과 낯선 병원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또한 그들이
투병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와 용기를 주시어
그들이 지금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묵 상

우리가 질병과 외로움과 무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기가 힘들 때에도, 고통의 경험은 은총을 전하는 탁월한 자리이며 마음의 지혜를 얻고 키우기 위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욥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 하느님께 드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 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뵈었습니다"(욥 42,5). 고통과 아픔의 신비에 잠긴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이를 받아들일 때 신앙의 산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이 자신의 머리로 고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23차 세계 병자의 날(2015. 2. 11) 담화문 –

둘째 날

수술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수술을 앞두고
걱정과 불안으로 초조해 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치유자이신 당신을 굳게 믿고
의료진들을 신뢰함으로써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수술에 임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명석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어
한 치의 실수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하심으로써
환자들이 수술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묵 상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십자가상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성모님의 영혼을 칼로 꿰찔렀지만(루카 2,35 참조), 그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이신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 주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온 인류에 대한 배려를 보여 주셨고, 이와 똑같은 배려의 역할을 맡으시도록 성모님을 부르십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26차 세계 병자의 날(2018. 02. 11.) 담화문 -

셋째 날

중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중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위험에 처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당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들이
좌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견뎌냄으로써
그들 자신을 통하여 위대한 생명의 신비가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묵 상

마음의 지혜는 형제자매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픈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당신 목숨을 바치러 오신 아드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입니다(마태 20,28 참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22,27).

아픈 형제자매와 묵묵히 함께하는 동행의 가치를 깨닫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령께 청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곁에 머물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 때 아픈 형제자매는 사랑과 위로를 더욱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삶의 질'을 들먹이면서 중병에 시달리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말들 뒤에는 얼마나 큰 거짓이 감춰져 있습니까!

-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23차 세계 병자의 날(2015. 2. 11) 담화문 -

넷째 날

난치병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좌절과 실의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인내와 끈기로 병마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또한 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가 날로 활발히 이루어져서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과 위안을 얻고
마침내 치유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묵 상

난치병 말기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아버지께 의탁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명, 특히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여러분의 고통이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결실을 맺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주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생명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격려와 힘을 언제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제들과 사목 종사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때에 여러분을 도와줌으로써 고통 받는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사랑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제15차 세계 병자의 날(2007. 2. 11) 담화문 -

다섯째 날

임종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시어
그들이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에 맡기며
자신의 전 삶을 기꺼이 주님의 뜻에 따라
봉헌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생의 마지막을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크신 위로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묵 상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과 함께 서 있던 제자, 요한 성인은 우리를 믿음과 사람의 원천, 곧 "사랑이신"(1요한 4,8. 16) 하느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인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과 함께 서 있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의 확실성"입니다. "그 사랑은 하도 커서 우리 죄 안으로 들어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와 우리에게 고통을 견뎌내는 힘을 줍니다. 그 사랑은 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22차 세계 병자의 날(2014. 2. 11) 담화문 -

여섯째 날

재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하느님 !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로 고통스런 삶을 살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인내와 용기를 주시어
현재의 장애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묵 상

병자 여러분, 교회는 고통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특별히 현존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 곁에,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우리의 고통 안에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 의미를 밝혀 주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분께서는 고통의 외로움을 물리치시고 그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신비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하느님 사랑의 계획 안에서는 고통의 밤마저 부활의 빛에 굴복하기 때문에 희망이 생겨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 모든 고난에 맞설 수 있게 해 주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22차 세계 병자의 날(2014. 2. 11) 담화문 –

일곱째 날

환자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사랑을 주시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환자의 동반자로서
모든 순간을 변함없는 가족애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게 하소서.

지금의 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이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환자들도 가족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안에서 하루빨리 쾌유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묵 상

성령께서 마리아의 어머니다운 마음에 불러일으키신 요청을 통하여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뿐만 아니라 자비도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배려에는 하느님의 온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요구, 심지어 가장 눈치채기 힘든 요구까지도 알아보는 많은 이들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 자신의 아픈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자녀, 조부모를 돌보는 손자들이 얼마나 자주 자신들의 기도를 성모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 24차 세계 병자의 날(2016. 2. 11) 담화문 -

여덟째 날

의료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하느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시며,
의료인들을 통해
환자들이 진정한 따뜻함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치유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묵 상

이 세계 병자의 날에, 우리 모두가 곤경에 처한 이들, 구체적으로 우리의 병약한 형제자매를 위하여 봉사할 준비가 되도록 예수님과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간청합시다. 때로 이러한 봉사가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적 노력을 어떤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느님께서 흔히 숨겨진 기적을 행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는 손과 팔과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건강하든 병들었든,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독에 채워져 좋은 포도주로 변한 물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신중하게 도와주면서도 우리 일상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릅니다(루카 9,23 참조). 비록 고통의 경험이 늘 신비로 남아 있는 것이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밝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24차 세계 병자의 날(2016. 2. 11) 담화문 –

아홉째 날

자원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봉사자로 부르시는 주님!
기꺼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는 자원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섬김과 봉사의 생활을 마다않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어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또한 그들이 헌신적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낌없이 배려해 준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화목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묵 상

마음의 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형제자매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픈 이들의 곁에서 보내는 시간의 특별한 가치를 잊고 삽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쁘고, 정신없이 일하고 활동하느라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돌보며 책임지는 것의 가치를 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 뒤에는 종종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 곧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형제자매를 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23차 세계 병자의 날(2015. 2. 11) 담화문 -

교직원을 위한 기도

치유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저희들을 이 일터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 기관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봉헌하며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아
영육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주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미약한 저희들의 손끝 하나 하나를 통해
영육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직원들의 건강도 지켜 주소서.
또한 성모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기쁨을 주게 하시며,
오늘 사용되는 모든 기기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CMC의 전인 치료를 위한 기도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의 봉사자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오니,
저희 CMC 가족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환자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하는 치료와
가족과 같은 돌봄과
애정을 담은 대화로
질병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진정한 전인 치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당신 안에서 환자들과 함께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CMC의 수호자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CATHOLIC MEDICAL CENTER

● 발행일: 2018년 1월 18일(개정 3판 1쇄)
● 발행처: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
● 주 소: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 전 화: 02)2258-7972~3
ⓒ가톨릭중앙의료원, 1997